

신라 말 선종의 수용과 확산

2017. 11. 28.

한기문 *

1. 선의 전래와 수용
2. 선종의 확산
3. 선종 성행의 정치·사회적 배경
4. 선종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과 선 문화

1. 선의 전래와 수용

1) 선의 의미와 중국에서의 전개

선은 인도의 속어 jhana에서 맨 뒤 모음이 탈락해 jhan이라고 발음되는 것의 음을 베낀 것으로 사유수(思惟修), 정(定), 공덕취림(功德聚林), 정려(靜慮) 등으로 번역된다.

당이 일어나면서 등장한 도신(道信)과 홍인(弘仁)은 호북성 기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들의 사제간 계승과 사상의 연속성으로 보아, ‘동산법문(東山法門)’이라 부를 수 있으며 후대 선종의 모태가 되었다. 동산법문에는 조직적, 집단적 수행법이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총칭해 ‘수심(守心)’이라 불렀다. 당시에 이미 수행의 경지를 스승이 인정하는 입실(入室), 부법(付法), 인가(印可) 등이 존재했다.

홍인 문하에는 신수 문하 외에도 다양한 제자들의 문하가 형성되었다. 신회(神會)가 홍인의 참된 후계자는 자신의 스승인 혜능(慧能)이라고 하고 신수는 방계라는 주장을 해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혜능을 정통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신설을 제기했는데 그중 전의설(傳衣說)과 남돈북점설(南頓北漸說) 등이 유명하며 많은 신봉자를 모았다. 신회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계속 강조되었고, 혜능을 계승했다고 칭하는 홍주종(洪州宗)과 석두종(石頭宗)은 혜능의 정통성과 그 상을 확립하였다.

8세기 중엽 마조도일(馬祖道一)과 석두희천(石頭希遷)이 등장하면서 큰 전환을 맞게

* 경북대 사학과 교수.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1998, 민족사) ; 『일연과 삼국유사』(공저, 2007, 신서원) ; 「신라 말 선종 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 2001 ; 「신라 하대 홍륜사와 금당 십성의 성격」 『신라문화』 20, 2002 ; 「신라 하대 진감선사의 활동과 범패교화의 의의」 『대구사학』 89, 2007 ; 「신라말 선승비문과 선종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불교연구』 41, 2014.

되었다. 특히 마조도일은 서당지장(西堂智藏)을 비롯한 많은 유력한 제자를 길러냈다. 그는 사천성 한주(漢州) 출신이고 성이 마씨(馬氏)이기 때문에 ‘마조(馬祖)’ 혹은 ‘마대사(馬大師)’ 등으로 존칭되었다. 대적선사(大寂禪師)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의 설법을 모은 『강서마조도일선사어록(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이 있다. 이 어록에서 ‘평상심이 도이다’, ‘마음이 부처다’는 말은 그의 선사상이 지닌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의 특징을 ‘마조선’ 혹은 ‘조사선(祖師禪)’으로 칭하고 그런 선을 이해한 이상적 인물에 붙이는 존칭으로 ‘조사(祖師)’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계열 제자들을 총칭하여 ‘홍주종’이라 하였는데, 그의 활동 지역이 홍주였던 데서 비롯한다.

2) 전래 초기의 선승의 활동

법랑(法朗)이 도신의 선법을 받고 신라에 전한 사실은 최치원이 「지증대사비」에서 언급하였다. 지증대사의 법계를 도신(道信)-법랑-신행(愼行)-준범(遵範)-혜은(慧隱)-도현(道憲)으로 보고 법랑이 도신의 법을 받았다는 것은 두정륜(杜正倫)의 사조 「도신비」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법랑이 신행에게 선법을 전한 사실은 김헌정(金獻貞)이 지은 「신행선사비」에 나오는데, 법랑선사가 호거산(瑚踞山)에서 지혜의 등불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행이 그 곳에 가서 깊은 진리를 받았고 3년간 법랑선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수도한 뒤 다시 입당 구법하였다.

기록상 법랑 다음의 선승은 신행이다. 그에 관해서는 813년에 건립된 「신행선사비」에 자세하다. 그의 속성은 김씨이며 경주인이었고, 아버지는 급간(級干) 상근(常勤), 증조부는 안홍(安弘)이다. 그는 보적의 문인 지공화상(志空和尚)에게 나아가 마음을 열었다. 대조선사 보적은 신수의 제자로서 북종선을 성행하게 한 인물이다. 신행은 북종선이 크게 융성한 시기에 유학한 셈이다.

759년 귀국하여 779년 입적할 때까지 20년 동안 단속사(斷俗寺)에 머물면서 전법하였다. 단속사는 경덕왕의 충신 이순(李純)과 상대등으로 면직된 신충(信忠)이 선후하여 머문 곳인데 여기에 신행도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신행은 경덕왕의 왕권강화, 한화정책 등과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으나, 왕의 정치적 좌절과는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혜공왕대 신행의 활동은 알 수 없다. 신행은 당에서 아직 마조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에 성행한 북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선사상을 이해하여 전법한 의의를 지닌다.

821년(헌덕왕 13)에는 도의(道義)가 귀국하였다. 그는 당의 서당지장에게서 배워왔는데 남종을 처음 전래한 스님이다. 하지만, 당시는 사람들이 종래의 교종에 심취하여 그의 선법을 마어(魔語)라 비방해 마침내 설산(雪山)에 은둔하였다고 한다. 서당지장의 스승은 마조도일인데 그의 사상적 특성은 앞서 서술한 바처럼 생활선으로 조사선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의는 법맥으로 보아 남종선(南宗禪)을 신라에 전래한 최초의 승려가 되는 셈이다. 이는 법랑, 신행, 삼륜으로 이어 오는 동산법문, 신수계의 북종과는 계통을 달리한다.

홍덕왕은 즉위 초에 남악(南岳)에 머물고 있던 홍척대사(洪陟大師)에게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법문을 청하였고 대궐에서는 그가 온 것을 경하하였다. 홍척에 대한 전기는 『조당집』에 서당의 법을 이었고 휘는 홍직, 시호는 증각대사(證覺大師), 탑호는 응적(凝寂)이라는 짤막한 기록밖에 없다. 홍덕왕이 즉위하기 전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822)과 김범문의 난(825)을 진압하고 난 뒤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덕왕대에 선종이 전격 공인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홍척에 이어 또 다른 선승이 입당 후 귀국해 홍덕왕으로부터 예우를 받았으니, 최치원의 「진감선사비」에 그 일대기가 소상히 전하는 혜소이다. 830년에 귀국하자 김헌창, 김범문의 난을 겪고 즉위한 홍덕왕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자비의 위력을 가진 누더기 영웅으로 예우하고 난에 가담한 상주지역의 노악산 장백사(長栢寺)에 주석하게 하여 그 지방민을 위무하도록 하였다. 혜소의 선사상은 선·교(禪·敎)를 겸한 성격이 있었다. 더구나 혜소는 그 자신이 대중교화에 중요한 범패사(梵唄師)였다. 육조영당(六祖影堂) 건립을 통한 교화도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 하였다.

헌덕왕과 홍덕왕대의 도의, 홍척, 혜소 등은 그 법계상 마조계열의 선 사상을 이었지만, 정치적 배경과 각 선승의 개성에 따라 그 교화 방법 등에 차이가 있었다.

2. 선종의 확산

1) 선종 사원의 확보

선종 사원의 성립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신행선사가 799년 남악 단속사(斷俗寺)에서 시적한 후 813년 그의 비명이 세워짐으로서 시작되었으나, 이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 선종 사원으로 역할은 부각되지 않는다. 보다 본격적인 것은 826년 홍척(洪陟)의 귀국과 홍덕왕의 귀의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남악의 실상사(實相寺)가 배려되지 않았을까 한다. 진감선사의 귀국과 장백사(長栢寺) 주석 등으로 선종 사원이 점차 정착되었다. 하지만 도의(道義)를 비롯한 국왕의 주목을 받지 못한 선사들은 초기 초암(草庵)이나 토굴(土窟) 등에서 수행하였고 뒤에 국왕의 지원을 받아 선종 사원으로 확장된 예가 많았다.

선종 사원이 확보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존 종단인 화엄, 법상 등의 사원을 선종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경우이다. 가지산사와 월광사 그리고 진구사, 화개곡의 사원, 대안사가 그러한 경우였다. 둘째, 터를 물색하여 창건하는 경우이다. 이는 쌍계사, 지실사, 법운사가 그러한 경우였다. 셋째, 지방세력의 원찰을 선종 사원화한 경우이다. 용엄사, 보현산사 등이 그 예이다. 넷째, 신라 王族의 원찰을 회사 받아 선종 사원으로 삼는 경우이다. 이는 성주사, 안락사, 심원산사, 석남산사가 대표적 예이다. 다섯째, 국왕의 교지로 기존 사원을 선종 소속으로 바꾸는 경우이다. 심묘사, 원향사, 실제사, 무량사, 영신사, 고달사 곡산사 등이 그러한 유형의 선종 사원이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경우 모두 국왕의 추인 즉 교지, 사액, 방생장 혹은 금살당 등의 사원 경계 표시의 허락, 해당 선승의 국왕의 우대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선종 사원은 현재 남아 전하는 비문 등의 자료에서 97寺의 사례를 뽑을 수 있었다. 이는 신라말 사원의 반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무주(武州) 일대가 11사의 선종 사원이 분포하여 가장 많았고, 지리산(智異山)에 6사가 분포하여 가장 많은 선종 사원을 포함한 산이었다. 당과의 교통 요지인 서산 성주사, 장흥 보림사, 김해 봉림사는 특히 번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례로 확인되는 선종 사원 중 왕대별 성립 사원 수는 흥덕왕대 3사 정도 확인되던 것이 신덕왕대에는 누적 사원 수는 34사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단월세력의 지원

선종 사원이 확보되고 확산되는 데는 국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흥덕왕대부터 진성여왕대까지는 각 왕대에 선종 사원을 확보해준 사례가 다수 있었다. 흥덕왕이후 역대왕의 선종 사원 지원 배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었다. 선사들을 국사로 맞아 직접 결연하거나 국왕측근의 왕족을 매개로 결연하여 선사들로부터 기성의 권위를 배격하는 사상을 받아들여 국왕권을 강화하는 개혁을 뒷받침 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선종 사원을 제공하거나 이미 자리 잡은 선종 사원을 지원하였다. 그 예는 무염과 김양, 김훈 그리고 성주사, 도현과 경문왕의 누이 단의장 옹주 그리고 안락사, 수철화상과 단의장 옹주 그리고 심원사, 행적과 명요부인 그리고 석남산사, 심희와 김윤희 그리고 봉림사, 개청과 민규 그리고 보현산사 등이었다.

선사들과 결연하거나 선종 사원을 제공하고 지원할 때 국왕의 근시기구나 문한기구의 학사(學士)들이 중사(中使)로서 역할을 하거나 제공한 선종 사원의 사비(寺碑)나 선사의 일대기인 비명(碑銘)을 작성하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제공하거나 지원한 선종 사원을 근시기구인 선교성(宣敎省), 중사성(中事省)에 예속한 가지산사, 흥령사의 예 등으로 보아 선사들의 이념, 측근 학사의 지원, 선종 사원을 연계한 국왕의 왕권 수호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세력을 제어하는 정치적 배경을 삼으려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종 사원이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아 자리 잡을 수 있었다.

3) 문도의 형성

선종의 확산은 선사들이 이끌었던 선종, 곧 제자들의 규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안사 적인선사 혜철(慧徹) 문하—100여 인, 보림사 보조선사 체징(體澄) 문하—800여 인, 성주사 낭혜화상 무염(無染) 문하—근2000인, 봉림사 진경대사 심희(審希) 문하—500여 인, 보리사 대경대사 여엄(麗嚴) 문하—500여 인, 비로암 진공대사 ?운(?運) 문하—400여 인, 흥법사 진공대사 충담(忠湛) 문하

--500인, 경청선원 자적선사 홍준(洪俊) 문하--100여 인, 정토사 범경대사 현휘(玄暉) 문하--300여 인, 흥녕사 정호대사 절중(折中) 문하--1000여 명, 태자사 낭공대사 행적(行寂) 문하--500인, 고달사 원종대사 찬유(璨幽) 문하--500여 명. 이상의 예에서 무염 문하가 가장 규모가 큰 2,000인이고, 작아도 100여명은 되는 규모였다.

3. 선종 성행의 정치·사회적 배경

1) 역대왕의 선종에 대한 우대

신라 하대 역대 왕들은 선종 사원을 제공하거나, 국사로 예우하면서 국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선종의 대중성, 집단성에 주목하고 정치적 배경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종 교단 역시 사원의 확보와 문도의 결속 및 유지를 위해 승탑을 건립하고 비문을 건립하려는 목적에 따라 국왕의 요청에 호응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2) 선승의 출신 배경과 교단의 기반

선승들은 중앙의 지배층에서 탈락한 6두품 이하의 하급 귀족 출신이거나 중앙 진출이 불가능했던 지방호족 출신이다. 나말려초 선종 승려 30인 정도의 비문이 전하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김씨이다. 이 중 왕도 출신이 아닌 경우는 6두품 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굴산사 범일의 조부 술원은 명주도독을 지냈고, 실상사 수철화상의 증조부는 소판을 지냈으며, 낭혜의 가계도 진골이었으나 아버지 범청 때 6두품으로 족강되었다. 이들은 조부 때만 하여도 진골이었으나, 6두품으로 탈락한 것이다. 선승의 신분을 보면 지방 출신이며 6두품 이하인 경우가 70% 정도나 된다. 그리고 이들은 다수가 당 유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새로운 의식으로 신라 사회의 신분 변화와 사회 변동을 추동하는 경향을 지녔다. 선승의 출현은 신라 하대 신분변동과 지방세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선종이 확산되는 데는 기존 교종 교단의 기반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화엄종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화엄종 사원이 이미 굳건하게 자리하였음에도 선종 사원이 새로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데는 오히려 화엄종의 기반이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대내외 정세와 당의 폐불 사태

흥덕왕대에 김현창, 김범문의 난을 진압한 후 여러가지 개혁 조치가 실시되었고 그를 배경으로 선종을 공적으로 받아들여 하였다. 앞서 살핀 대로 흥척, 혜소에 대한 우대가 그러하였다.

한편 당에서는 무종 시기 폐불 사태가 전개되었다. 84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니가 된 자를 환속시키는 정도였으며 그것은 늘 해오던 조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845년 이후 도교에 심취한 무종이 도사들의 배불론에 기울어지면서 과격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50세 이하 승니를 환속시킴과 더불어 전국에 존속시킬 사원의 개소와 승니의 정원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승니의 99%가 환속되었고 훼손된 사원은 대사가 4,600개 소, 난야 등 규모가 작은 것은 4만개 소였다.

외국승 역시 모두 추방되었는데 엄격한 감시와 통제하에 미리 정해진 노선에 따라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최종 출항지는 등주였다. 당시 재당 외국승 중에는 신라승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도 모두 등주에서 출발해 귀국하였을 것이다. 흥덕왕대는 선종이 왕실에 의해 수용되고 이어 문성왕대는 선종이 지속적으로 성행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귀국하였음을 비문으로 알 수 있는 신라선승으로는 혜철, 무염, 도윤, 범일 등이 있다.

4. 선종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과 선 문화

1) 선종 인식

김헌정, 최하, 김영, 김원, 최치원 등은 모두 도당경험이 있다. 특히 김영과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해 당의 벼슬까지 하였다. 그들은 당시 당에서 유행한 선종을 깊이 이해한 바탕에서 비문을 작성하였다. 크게 보아 9세기 초에는 이미 당에서 홍주종(洪州宗) 곧 마조선이 널리 유행하여 모두 이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비문을 찬술하였다.

김헌정은 신행의 교화는 간심과 방편다문을 통한 것으로 서술하여 북종선을 의식하였다. 선은 마음으로 도에 이른다고 표현하여 마조선도 이해한다. 선을 통해 죄업을 씻고 세속의 덕을 얻는다는 사회적 의미를 제시한다. 9세기 말의 최하는 선은 식과 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김영은 도의가 전한 선을 강조하여 무위임운으로 그 특징을 잡고 남종에 힘을 주었다. 김원은 선의 종취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으로 성찰하였다. 최치원은 지증대사비에서 신라 선종이 갖는 무위의 종취와 그 사회적 기능, 그리고 선승들의 활동에 따른 선종의 특성까지도 정리하였다. 선종을 통한 신라 사회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경명왕은 왕의 입장에서 선사가 국왕을 대신하여 혼란과 외도를 승복시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9세기 초 김헌정은 북종선, 마조선 등을 함께 이해하고 선이란 죄업을 씻는 개인공덕으로 이해하였다. 9세기 말 김영은 선을 무위임운으로 표현, 마조선을 확실히 강조하여 생활선을 드러내었다. 선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서 최치원과 경명왕은 마조선의 신라식 내재화와 보편화를 추구한다. 나라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대망하는 사회적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

2) 선 문화

선종 사원은 대집단을 수용한 만큼 사원이 자리 잡은 곳에 경계 표시를 하였다. 그 경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배타적 사원 공간으로서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 예는 가지산 보림사에 원표대덕이 거처할 때 이미 설치된 장생표(長生標)가 있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건물은 대규모의 승려 거주 공간을 확보한 특징이 있다. 집회와 설법을 위한 선법당(選法堂)이 있었다. 비문에 흔히 쓰인 ‘도마성렬(稻麻成列)’이라는 표현은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든 선종이 많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수용한 사원 시설이 선법당일 것이다. 고승들 거의 대부분이 법당에서 입적하는 것으로 보아 선종 사원의 중요 시설이자 특징은 바로 이 법당이었다. 금당(金堂)의 주존(主尊)은 지방에서 대집단의 승단을 유지하기 위한 위력을 가지기 위해 거상(巨像)으로 중압감 있게 주로 비로자나 철불(鐵佛)로 구성되어 봉안되었다. 화엄종 기반을 수용한 경향을 반영한다. 선종 사원의 대 집단화와 이를 수용할 제 시설을 운영할 자체 조직도 성립되었다. 이는 920년 이후 선사들의 비움기에 나타나는 삼강조직(三綱組織)에서 유추된다. 공동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청규(淸規)를 수용하였다.

승려의 인맥인 법계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영당(影堂)’을 중요 시설로 삼았다. 그래서 성주사의 칠조사당(七祖祠堂)이나 쌍계사의 육조영당, 그리고 진전사에 도의선사의 진영이 모셔진 사당은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또 선사들의 승탑과 비문의 건립이 유행한 특징이 있다. 곧 이들을 ‘조사’로 우대하여 그 죽음을 예우한 것이다. 승탑의 제작에는 공장이 참여한 점과 그 예술성으로 보아 왕실의 지원이 뒷받침되었음이 짐작된다. 이는 비문의 건립과 세트를 이루기 때문이다. 비문의 경우 그 건립 과정을 보면 찬술, 비의 제작에 왕실의 권위와 재력이 투여되는 불사였다. 따라서 비의 건립은 신라 왕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배경으로 사원의 존재와 영속성을 보장 받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최병현, 「신라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한국사연구』 7, 1972.
고익진, 「신라하대의 선전대」,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5.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 민족사, 1991.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정성본, 『신라선종의 연구』, 민족사, 1995.
조범환, 『신라선종연구-낭혜무염과 성주산문을 중심으로-』, 일조각, 2001.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조범환, 『나말려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조범환, 『나말려초 남종선 연구』, 일조각, 2013.
한기문, 「신라말 선종 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 2001.
한기문, 「신라 하대 진감선사의 활동과 범패교화의 의의」, 『대구사학』 89, 2007.
한기문, 「신라말 선승비문과 선종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불교연구』 41, 2014.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가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